

# 희망의 홀씨

마지막 벽돌 한 장을 쌓아주세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지어지고 있는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15년 10월 현재 공정률 84.41%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 더미라클스

누구에게는 책임  
우리에게는 특권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푸르메재단의 고액기부자 모임

푸르메재단이 2014년 12월에 발족한 '더미라클스'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정기모임과 총회를 통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형 커뮤니티입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재단입니다.

# CONTENTS

## 04 푸르메 인연

서경덕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나비효과를 위한 마지막 벽돌 한 장

## 06 푸르메 포커스

푸르메재단백슨어린이재활병원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 14 기적을 만드는 기업

- 넥슨  
재미있는 나눔으로 즐거운 변화를 이끌다
- 현대백화점 킷텍스점  
고객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 17 홀씨 이야기

“현우처럼 아픈 친구들을 위해 써 주세요”

## 18 착한 가게

하동관 여의도 직영1호점  
나눔을 실천하는 76년 전통 곰탕 명가

## 20 기적을 이끄는 사람

한익중 기부자  
인생의 재미, 걸어서 나눔!

## 21 기적을 꿈꾸는 어린이

김혜원 · 김언정 모녀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기적

## 22 기부 캠페인



04



14



21

## COVER STORY



곳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민들레 홀씨처럼 온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홀씨가 되어 장애어린이들에게 어린이재활병원을 선물해주세요.

통 권 제1호

발행일 2015년 10월 28일

발행인 김성수

발행처 푸르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주 소 (03032)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신교동,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전 화 02-720-7002

팩 스 02-720-7025

디자인 얼스

모든 글, 사진, 그림은 푸르메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www.purme.org](http://www.purme.org)

 [facebook.com/purmefoundation](https://facebook.com/purmefoundation)

 [twitter.com/purmefoundation](https://twitter.com/purmefoundation)

 [happylog.naver.com/purme.do](http://happylog.naver.com/purme.do)

# 나비효과를 위한 마지막 벽돌 한 장

서경덕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국내 단 하나뿐인 어린이재활병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는 나비효과  
를 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기다  
립니다.”





| 한국홍보전문가로 활동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서경덕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푸르메재단의 홍보대사를 맡은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푸르메재단과의 인연은 기부와 자원 봉사를 통해 10년째 푸르메재단 지원에 열심이었던 친한 대학 동창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직장도 다닐 수 있는 30만 명이 넘는 장애어린이들이 전문재활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본 180개, 독일 140개, 미국 40개가 넘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흔쾌히 홍보대사직을 수락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가수 션 씨와 함께 연 '토코콘서트'였습니다. "한 순간도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며 "아이가 죽은 다음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장애어린이를 둔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단순한 홍보대사 역할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장애어린이 재활치료의 절박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제작을 비롯해 후원콘서트, 책을 통해 기금을 모으는

기적의 책 캠페인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국내 장애어린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를 꼽으라면 단연 가수 션 씨입니다. 역시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인 션 씨는 매년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 사이클 대회에 참가해 발톱이 여러 개 빠지고 1만 km가 넘는 거리를 완주하면서 장애어린이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서울 상암동에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병원을 건립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내년 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홍보대사로서 뿌듯하고 가슴이 벅칩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잘 운영되어 장애어린이 재활치료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면 전국 주요 도시에 또 다른 제2, 제3의 어린이재활병원이 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국내 단 하나뿐인 어린이재활병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는 나비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 벽돌 한 장을 건네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겠다던 10년 전의 꿈.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그  
꿈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다른 기나긴 여정의 끝자  
락.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그날을 그리며, 희망의 벽돌 한 장  
을 기다립니다.





##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

뇌병변 장애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린 윤주는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그냥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대기시간만 1년.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어린이들은 윤주처럼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렇다 할 어린이재활병원이 없는 우리나라. 미비한 재활의료체계와 낮은 치료 수가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병원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푸르메재단이 나섰습니다. 장애어린이들에게 의료재활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푸르메재단이 2005년부터 꿈꿔 온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0년이란 기나긴 날갯짓 끝에 드디어 2014년 3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첫 삽을 뜨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5·6층 병동 재활연습 공간

#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지상 7층, 지하 3층, 병상 100여 개 규모로 지어질 푸르메재단벡슨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건강정신과·소아청소년과 등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어린이들이 사회에 나가 스스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을 만들 것입니다.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중심이 되고, 장애어린이에게 맞춘 전문재활치료체계를 확립해 공공의료시설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없었던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 2층 재활치료센터 전경



| 중앙계단에서 바라본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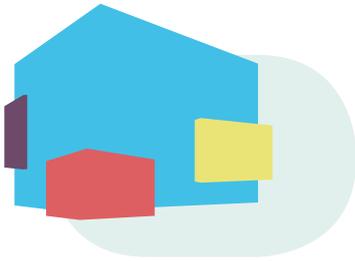


| 7층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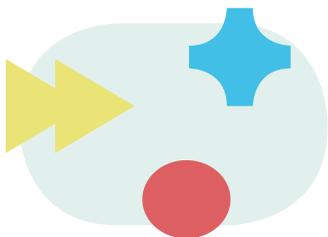
| 1층 어린이도서관

# 우리가 꿈꾸는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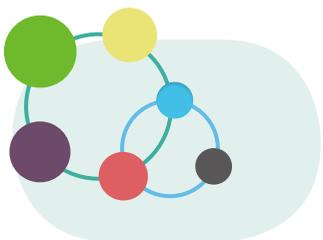
## | 집보다 편안한 병원

아이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즐거운 병원을 구상했습니다. 병실에 누워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단, 복도, 대기실에서도 재활 훈련이 가능한 것은 물론, 대기할 때도 컴퓨터를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병실, 주차장, 화장실, 옥상정원 등 모든 시설을 어린이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물리, 작업, 개별 치료실을 한 층에 구성해 이동의 불편함도 덜었습니다. 마음의 장벽뿐 아니라 이용의 장벽을 허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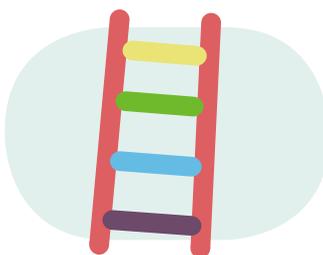
## | 놀이로 치유되는 병원

전문적인 재활치료시스템에 더해 놀면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어린이들은 열린예술치료실(가칭)에서 부모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술, 조경, 음악 등의 각종 치유 프로그램과 넓고, 재밌고, 감성이 가득한 공간에서의 음악회, 강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책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 | 함께 어우러지는 병원

치료시설 외에도 지역주민과 장애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 강습(3개 레인)과 장애인의 수중재활치료(1개 레인)가 이뤄지는 수영장, 장애청년이 일하는 행복한베이커리&카페, 각종 체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홀, 대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노인교실, 지역주민의 문화와 여가를 지원하는 문화교실, 지역주민의 병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도 열립니다.



## | 미래를 준비하는 병원

병원학급은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어린이에게 양질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재활센터는 기업과 연계해 장애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과 적성에 맞는 훈련,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자립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 병원 층별 안내도



# 기적을 향한 발자취



| 2014년 4월 16일 터를 고르다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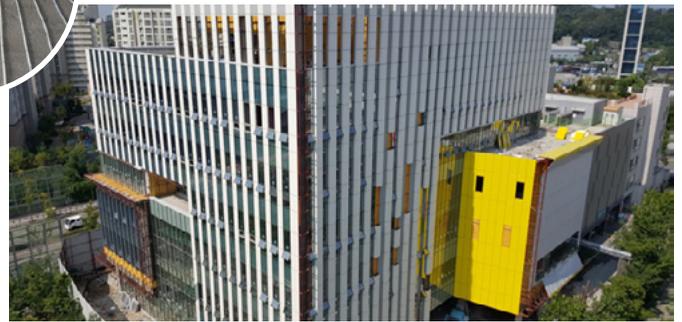
| 2014년 10월 29일 기초를 만들다 18.20%



| 2015년 2월 11일 뼈대를 세우다 27.03%



| 2015년 7월 22일 외장을 입히다 60.43%



| 2015년 9월 9일 가림막을 벗겨내다 75.81%

# 함께 쌓아 올리는 희망의 벽돌

내년 봄 개원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푸르메재단빅손어린이재활병원. 적자에 허덕인다고 모두가 포기할 때 푸르메재단은 1만여 명의 시민, 500여 개의 기업·단체와 힘을 모아 희망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구가 부지를 제공했고, 서울시가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한미글로벌은 CM(건설사업관리)을, (주)간삼건축은 설계를, (주)강산건설은 시공을 맡아주었습니다. 2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빅손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돼지저금통을 들고 온 초등학생부터 얼마 되지 않는 수급비의 일부를 매달 보내오는 할머니까지, 일반 시민들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건립비 430억 원 중 375억 원이 모였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오늘도 장애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어린이들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푸르메재단빅손어린이재활병원. 여러분이 더해주는 벽돌 한 장이 장애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수 선



성악가 조수미



NXC 김정주 대표



소설가故박완서



산악인 엄홍길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오늘도 장애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푸르메재단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 재미있는 나눔으로 즐거운 변화를 이끌다



### 업계 선두 기업다운 통 큰 기부

탄탄한 개발력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넥슨. 세계 첫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했고, 게임 유저라면 누구나 알만한 인기 게임 '카트라이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던전 앤파이터', '영웅의 군단', '도미네이션즈' 등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업계 선두 기업답게 사회공헌활동도 남다릅니다. 2010년 사회공헌브랜드 '넥슨핸즈'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넥슨은

오랫동안 장애어린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고민해왔습니다. 이는 푸르메재단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넥슨과 푸르메재단이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12년. 넥슨이 푸르메재활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기부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2013년, 넥슨은 장애어린이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푸르메재단과 함께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로 11억 3천2백만 원을 전달하고, 총 건립비의 절반에 달하는 2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재미를 담은 다양한 나눔 활동

넥슨은 기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재능기부로 푸르메재활센터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치료 공간을 선물했습니다. 벽면 곳곳은 직접 디자인한 알록달록한 민들레 흙씨로 채워 넣고, 로비는 아기자기한 장난감으로 장식했습니다. 어린이날이면 직접 푸르메재활센터를 찾아 쿠키만들기, 배지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넥슨 게임 이용자들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넥

슨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푸르메재활센터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 공연, 스포츠를 통한 기부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넥슨의 '더 놀자밴드'는 2013년 창단 1주년 기부 콘서트를 열었고, '넥슨 러너즈'는 2014년 기부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늘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장애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넥슨. 이들의 재미있는 나눔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넥슨이 이끌어갈 즐거운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200억 원 기부를 약정한 넥슨 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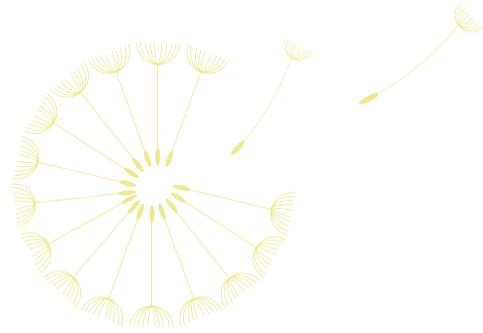
현대백화점 킷텍스점 홍정란 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

## 고객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 현대백화점 킷텍스점

현대백화점 킷텍스점은 5년 전부터 장애어린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자선행사를 통해 그동안 푸르메재단에 기부해준 금액은 어느새 8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고객들과 함께 모은 의미 있는 기금입니다. 현대백화점 킷텍스점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어린이를 위한 자선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관객들은 십시일반으로 모금 행사에 참여해 주었고, 현대백화점 킷텍스점은 관객 모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푸르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고객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선바자회 '그린마켓'의 수익금도 기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킷텍스점의 진정성 있는 나눔, 고객들의 아름다운 소비로 모인 기부금은 푸르메재단백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와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로 소중한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킷텍스점 임직원과 고객들은 푸르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눔' 캠페인에도 동참해 주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백화점 킷텍스점. 장애어린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나눔의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 “현우처럼 아픈 친구들을 위해 써 주세요”



글 커뮤니케이션 전문인 김금주

지난 6월, 편지 한 통과 함께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데 써달라며 기부금을 보내온 이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 기도가 막혀 세상을 떠난 뇌병변 장애어린이 정현우 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현우의 장례식 조의금 일부를 건넸습니다.

몸에 맞는 휠체어가 없어 유모차를 타야 할 정도로 작고 여렸던 아이.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이 다가 가면 밝은 표정을 지어보이던 아이. 가족들은 현우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발이 닿는 곳 어디든 데리고 다녔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재활치료도 받고, 특수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현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가슴에 묻은 어머니는 함께 슬퍼해준 사람들에게 “현우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비록 현우는 어린이재활병원을 다닐 수 없게 됐지만, 현우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달라”며 현우 친구들을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 짓게 했던 작고 예쁜 아이 현우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영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늘 살아 있을 것입니다.



|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현우

하동관 여의도 직영1호점

# 나눔을 실천하는 76년 전통 곰탕 명가

선선한 바람이 부니 몇 날 며칠을 폭 곤 곰탕 한 그릇이 생각납니다. 가마솥으로 끓인 말간 탕국이 늦그릇에 정성껏 담겨 나오는 곳. 4대째 이어져 온 76년 전통의 곰탕 전문점 하동관으로 자연스레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함께하는 '착한 가게' 하동관 여의도 직영1호점의 장승연 대표를 만났습니다.



| 하동관 여의도 직영1호점 장승연 대표

한우로 고아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하동관 곰탕



한우로 고아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하동관 곰탕

## 곰탕 외길을 우직하게 이어온 비결

하동관은 1939년에 서울 중구 삼각동에 문을 연 이후 곰탕 전문점으로서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2007년 명동으로 옮긴 이후 줄곧 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창업주에 이어 장승연 대표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차례로 대를 이어 온 명동 본점은 허영만 작가의 만화 '식객'에도 나올 만큼 유명세를 탔습니다. 뭐가 특별해서 이렇게까지 유명한지 물으니 대답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사실 별 게 없어요. 고기랑 내장 넣고 삶으면 되죠. 곰탕에 밥 한 공기, 깍두기 한 접시로 간단해요."라면서 "아닌 건 과감히 쳐내고 맞는 건 밀고 나가며 5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어머니의 독심" 덕분이라는 것. 오직 최고 품질의 한우만 쓰겠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느라 상당한 비용의 고기값도 감수합니다.

## 독심을 믿고 찾는 손님들이 증언하는 맛

어머니의 올곧은 장인정신을 보고 자란 장승연 대표는 명동 본점에서 무려 7년 동안 화장실 청소부터 가마솥 정리, 고기 썰기 등 기본기를 탄탄히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품게 된 꿈은 가게를 물려받기보다는 자신의 가게를 차리겠다는 것. 그런 꿈을 따라

2013년 11월 여의도 직영1호점에 이어 2014년 11월 코엑스몰에 직영2호점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어머니의 손맛을 지키느라 재료는 일일이 손질하고 각두기도 직접 담급니다. “네 손이 보배다. 어머니한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해 달라”던 40년 단골 고객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맛을 봤다”던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을 장승연 대표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뿌듯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 하동관 여의도 직영1호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삼희익스콘벤처타워 1층 (주차 가능)

영업시간 : 오전 7:00 ~ 오후 4:30  
(매주 일요일 휴무)

문의 : 02-785-9292

#### 장애어린이 위한 1% 나눔

하동관은 푸르메재단에 매출의 1%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가수 션을 통해 장애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알게 된 장승연 대표는 가게를 열면 기부를 하겠다고 일찍이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말만 앞서지 않으려면 작든 크든 우선 기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작은 손길이 모이면 장애어린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정기기부에 이어 가게 안에 나눔모금함을 비치해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극처럼 ‘울곧고 단단하게’ 곰탕을 만들겠다는 장승연 대표. “흔들리지 않고 기본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하동관에는 오늘도 똑심으로 우려낸 곰탕을 맛보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 하동관 코엑스몰 직영2호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몰 지하 1층 J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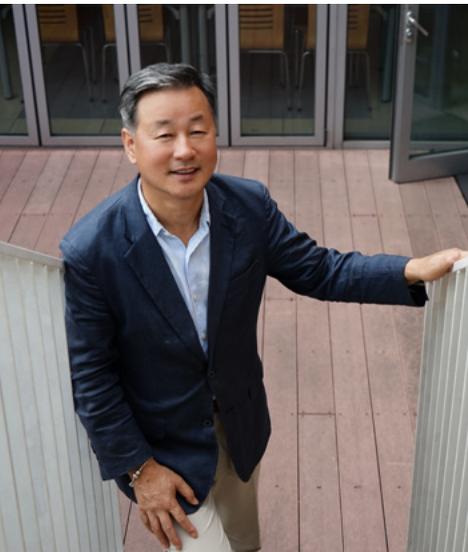
영업시간 : 오전 10:00 ~ 오후 8:30

문의 : 02-551-5959



| 76년 전통 곰탕 명가 하동관 여의도 직영1호점 입구

# 한익중 기부자 인생의 재미, 걸어서 나눔!



| 걸기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익중 기부자

한익중 기부자 인터뷰

한익중 기부자가 제안하는 '한걸음의 사랑' 모임 회원을 모집합니다. 푸르메재단의 기부자로서 평소 걸기를 좋아하고, 걸기를 통해 1m당 1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월 1회 걷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회비는 1m당 1원의 기부금으로 대체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모금사업팀 02-720-7002

서울 산성길 4.7km, 춘천 의암순례길 12.9km, 동해 해파랑길 28.5km라고 각각 적힌 봉투 3개가 도착했습니다. 아득한 그 거리를 1m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동화에 단출한 차림의 걸기예찬자가 건넨 기부금입니다. 왜 걷느냐고 물으면 단번에 “즐거우니까!”라고 답하는 분. 한 템포 쉬는 여유를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걷는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닐까 싶지만, 기꺼이 나눔을 추가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인 걸기를 통해 재미있는 나눔을 추구하는 한익중 기부자를 만났습니다.

## 삶의 일부가 된 '재미있는 나눔'

2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제2의 삶을 펼치고 있는 한익중 기부자. 강원도 화천군에 컨테이너로 소박한 집을 짓고 서울 종로에 여행사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나눔. 전 직장에서도 사내 봉사대상을 두 번이나 탔을 정도로 '나눔 정신'이 몸에 밴지 오래입니다. “나눔은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보람과 재미는 필수죠.”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만족을 미루면 큰 보상을 얻는다는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마시멜로 박스'를 만들어 도보로 출퇴근할 때마다 1천 원씩 적립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저금통이었던 셈.

## 걷기, 장애어린이를 위한 작은 행동

푸르메재단의 이웃 동네 주민으로서 지나다니기만 하다가 2013년 백경학 상임이사의 강연을 듣고 바로 '여기대' 싶었습니다. “어린이를 지키는 일은 어른의 당연한 책무죠.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일은 누구라도 나서야 합니다.” 힘이 되고자 마시멜로 박스에 차곡차곡 모아 온 돈을 보냈습니다. '1m 1원' 걷기는 좋아하는 일로 나누기 위해 시작한 야심찬 프로젝트. 걸으면서 거리를 잴 수 없으니 전국에 조성된 도보여행길의 정확한 거리에 몸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9.6km 난코스도 마다 않고 어디로든 훌쩍 떠납니다. 떠난 만큼 기부금 봉투는 무거워집니다.

##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해지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고 남의 손으로도 전파시켜야 합니다. 나눔으로 얻을 수 있는 희열과 만족을 남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일은 퍼트려야 하지 않을까요?” 걷기와 기부를 혼자서 즐기기 아까운 이유입니다. 나눔이 어떤 의미냐고 묻자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답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낄 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걸음도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나눔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가 안내하는 재미, 건강, 나눔의 행복한 삼박자에 리듬을 타게 됩니다. 오늘은 참 걸기 좋은 날입니다.

# 김해원 · 김언정 모녀

##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기적

파키스탄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뇌병변 장애로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거라 했지만 6년여의 재활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는 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엄마, 그리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넨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기적을 쌓아가고 있는 두 모녀를 만났습니다.

### 파키스탄에서 온 이른둥이

파키스탄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를 둔 아홉 살 소녀 해원이.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두 살 무렵 한국에 왔습니다. 해원이 엄마 김언정 씨는 세 살 터울인 오빠와 비교해 유독 발달이 더딘 해원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배 속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일곱 달 만에 2kg 미만으로 세상에 나온 해원이였기에 더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 앉거나, 기어야 할 시기가 되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일단 의료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한국행. 한국에 오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해원의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 희망 되찾아 준 따뜻한 손길

김언정 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00%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1%라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렸죠. 오직 해원의 재활치료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해원의 재활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해원을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이 해원이 오빠는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효성그룹이 푸르메재단을 통해 두 모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해원의 재활치료비와 해원이 오빠의 교육비를 지원해줬어요. 휴식이 필요했던 저희 가족에게 여행까지 보내줬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참 고마워요.”

### 6년 만에 찾아온 작은 기적

두 모녀의 긍정적인 힘, 그리고 효성그룹의 나눔의 손길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재활치료를 시작한지 6년. 팔을 움직일 수도, 걸을 수도 없던 해원이가 힘겹게나마 연필을 쥐고,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일어나는 거 같아요. 우리에겐 어제 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이 기적이죠. 매일 매일이 기적이네요.(웃음)” ‘다문화 2세대’, 그리고 ‘불편한 몸’. 남들과 다른 모습에 해원이가 의기소침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학교생활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해원이. 그런 해원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김언정 씨. 두 모녀는 오늘도 또 다른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 김해원·김언정 모녀

# 장애어린이의 희망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세요!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사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함께해주세요.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나눔, 미라클데이

누구나 한번쯤 맞이하는 특별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입니다. 돌잔치 축의금을 기부한 가족, 결혼을 맞이해 함께 기부한 부부,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전달한 어린이, 조카의 졸업 선물로 기부를 신청한 이모, 돌, 결혼, 기념일 등 인생의 소중한 날에 나눔을 더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 첫 생일 나눔



| 결혼 나눔



| 기념일 나눔



| 기부선물 나눔

### 선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장애어린이의 삼촌' 가수 선과 함께 1일, 1만 원씩, 1년 동안 365만 원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 이지선과 함께하는 기적의 손잡기

'희망의 메신저' 이지선과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2만 원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신규기부 및 증액문의  
푸르메재단 모금사업팀

전화 02-720-7002

팩스 02-720-7025

이메일 hope@purme.org

우편 (03032)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신교동,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푸르메재단 모금사업팀

### 기부계좌

국민 870301-04-013107

외환 630-005390-913

우리 1005-600-989825

농협 301-0027-7538-11

기업 024-062367-01-018

\*푸르메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완공 예상도

2016년 봄 개원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1만여 명의 시민, 500여 개의 기업·단체의 따뜻한 손길로  
 건립비 430억 원 중 375억 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55억 원이 부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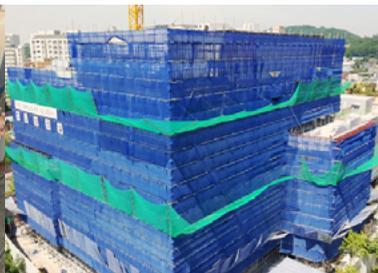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무사히 지어져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장애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



2015년 10월 현재



**13%**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년 봄 문을 여는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여전히 건립비 13%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쌓아준 벽돌 한 장이 장애어린이들의 희망이 됩니다.